

민주-안, '따로 또 같이'? ... 첫 공동 정책토론

안측 송호창 의원 주도 '사회적 경제' 토론회에

민주 비상 의총 불구 이학영·정호준 의원 참석

민주당 이학영, 정호준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안 의원 측이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에는 안 의원도 참석했으며 안 의원의 대선예비후보 시절의 허영전 비서팀장, 이원재 전 정책기획팀장 등이 발제를 맡아 유럽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회적 이슈를 소개했다.

이 시각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을지키기 및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의회'를 열었지만 두 의원은 지도부의 양해를 구하고 9시30분 토론회 개최시간에 맞춰 의총장을 나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를 둘러싸고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 추진 이후 '경쟁'에 방점이 찍혔던 양측간에 정책공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주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발제를 하는 자리라 더 깊은 마음"이라며 "새로운 상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양보한 보건복지부에 합류했고, 최근에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조현욱 비서관을 의원실에 영입한 바 있다. 정호

준 의원은 부친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인 지난 4월 재·보선 선거 당시 노원병 지역을 찾아 안 후보를 격려하는 등 안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개최사를 통해 "국회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가와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제도와 밑에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생소한 것이 국회"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국가와 기업의 주식 자본주의를 벗어나 시민 하나하나가

사회 발전의 주체로 참여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는데 이 토론회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사고가 광배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도 보수·진보의 대립이 반복되고, 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지역균형 발전,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당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최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국가와 시장의 의존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나 지역

사회의 이해당사자의 자발참여를 통해 호혜적 참여 만드는 '사회적 경제' 개념이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제3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 개최 등을 시작으로 입법 등 원내활동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공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교섭단체 의원 모두 협력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송호창·정호준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새로운 상상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도시락 스킨십'

당내 화합·결속 다진다

광역단체장 간담회 정례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화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속 의원 및 당내 주요인사들과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고 민주당의 고질병으로 거론돼온 계파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3일 낮 국회 당 대표실에서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던 초선 의원 10명과 함께 '도시락 회동'을 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 사이에서 혁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준비가 나름대로 착착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하루투 시간을 써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격을 사전 차

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향후에도 이날 회동에서 빠진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 재선, 3선 및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등포 당사나 국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도시락 회동'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단과 정책간담회를 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상임고문단, 12일에는 고문단 오찬을 각각 했다.

김 대표는 또 상임고문단과 고문단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화상회의 방식으로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잠재적 대선주자 등 당내 지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원탁회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檢, '박주선 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신청

"사조직 만들어 모바일 선거인 모집 사전선거운동"

박의원측 "대법원서 이미 무죄 확정된 사실" 반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과 기결정을 받은 박주선(64·무·광주동구)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앞두고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3일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사조직을 통해 모바일 선거인 모집을 독려하고 구청장, 구의원 등으로 하여금 불법 주조직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을 모집,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 추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사조직을 통해 경선인 조직을 독려한 사실을 보강,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했다며 확정된 사실에 추가 공소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의원이 "사조직 설립 등은 대법

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재판 지연과 인권 침해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박 의원이 가담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박 의원이 직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추가해 관점이 달라졌다"며 "변경 대상이 되면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으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황주홍, '새 정치 난상토론' 책 펴내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13일 김민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새 정치 난상토론'이란 책을 펴냈다.

세 사람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이 책에서 황 의원은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머니는 비록 틀렸을 지라도 옳다'는 말을 빌려 한국 정치와 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국민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고 외쳤다. 국민이 틀렸다고 일축하는 순간 민주당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의원은 책 말미에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방법'에 대해



"내게는 그 길이 너무 쉬워 보이고, 내 눈엔 너무 환히 보인다. 후보시절의 김대중처럼, 후보시절의 노무현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 후보시절의 이명박처럼, 후보시절의 박근혜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며 "이회창, 정동영, 문재인처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못한다는 것이냐. 도대체 왜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김영록,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세미나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4일 완도군 해양연구소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과 전국수산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해조류산업의 미래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4차 현장세미나인 이번 세미나에서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계기로 해조류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곡물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를 비롯한 수산양식산업이 미래 식량문제 해결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 건강식품 및 의약품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계기로 해조류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록,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방안 토론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치료제로서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화순 출신인 김 의원은 "정부



를 병마는 물론 비싼 치료비와 약값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임상시험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